

'타악&DJ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쿨'

전주한벽문화관, 13~14일 한벽공연장서 유쾌한 공연 개최 전주문화재단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일환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유쾌한 공연 '타악&DJ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전주문화재단이 선정돼 실행되는 것으로, 총 2개의 공연 중 첫 번째로 (사)타악연희원 아귀가 문을 연다. 공연은 오는 13~14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 한벽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비트 오브 스쿨'은 아귀가 지난 9년 동안 도내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해 온 '열린 타악 예술체험 oh(오감)'을 새롭게 재구성한 난버블 퍼포먼스 극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을 연희와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특히 공연은 '아귀'의 대표 장르인 타악을 비롯해 관객이 참여하는 핸드벨 코너, 마술, 저글링 등이 펼쳐지고, 마지막 시간에는 디제잉 파티가 준비됐다. 김철민 관장은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우리 지역 최고의 공연단체인 '아귀'의 공연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선보이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비트 오브 스쿨' 공연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티켓은 우리 지역 공연 예매 플랫폼 '나투컬처(naturculture.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다만, 현장예매는 불가하다.

/장은성 기자



타악&DJ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쿨 포스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시원차림'으로 ESG경영 실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시원차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원차림'은 '쿨 비즈니스 데이'의 한국어 순화어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냉방 에너지 절약과 복지에 대한 경각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내부 홍보를 통해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나 행사에도 간편 차림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지난 2일 재단에 따르면 제2차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7월부터 9월까지 '노 타이, 노 재킷, 반바지 착용' 등 복장 간소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사무실 내 불필요한 조명 및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반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한 한 직원은 "'시원차림'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ESG경영 실천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경영지원팀(063-230-7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청소년문화센터 '예술로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청소년문화센터가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높이고 수도권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사업이다. (재)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청소년문화센터는 함께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고창의 초등학교 중심의 환경과 예술을 결합한 업사이클링 예술놀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환경요정의 예술놀이'를 공동 기획·운영하여 양말목 티셔츠, 유리병 매듭화병 만들기 등을 활동을 통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제12회 우진청년작가 정기전' 개최

우진청년작가회(회장 홍경준)는 오는 16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전시실에서 '제12회 우진청년작가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진청년작가회는 우진문화재단이 정기적으로 전북지역 순수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진청년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단체다. 이번 행사에는 30명의 회원들이 참여,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소, 공예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또 다양한 주제의 독특한 표현 매체와 방법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를 마치고 작품들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전관에서 '창작공동체우리(제주)X우진청년작가회(전주)교류展'으로 18~27일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경준 회장은 "이번 교류전이 침체에 빠져있는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와 전북지역 예술가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여 예술가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전주국제영화제, 9월 6~8일 행사 개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9월 6~8일 구도심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2024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의 행사 포스터도 공개됐다. 이번 포스터는 돈위리베이비 스튜디오가 디자인했으며, 가을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색감과 음식, 영화, 공연 등 전주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모습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했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곳곳에서 특별한 야경과 함께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전주씨네투어X산책'도 9월 한 달간 매주 금·토요일 저녁마다 전주한옥마을 휴빌리지(어진길 29)마당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8월 중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je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 선물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in 군산' 9월 12일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in 군산'이 오는 9월 1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브루크너 교향곡 중 유일하게 '로맨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교향곡 4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은 오르간적인 음악적 발상이 돋보이는 곡으로 그의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사랑받고 연주되었던 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루크너의 밝고 낙천적인 자연관과 독일 숲속의 신비로움 등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음악으로 가장 잘 표현한 곡으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뛰어난 연출과 수준높은 연주를 통해 만족도 높은 공연이 기대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이명근 상임지휘자와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단단히 다져온 앙상블로 시민 여러분들을 격조 있는 음악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 좌석 5,000원의 유료공연이다. 예매는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공연장 1층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